

부분과 전체 : 근대 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권정화*

근대 지리학 방법론 논쟁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지역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지역 연구의 절차를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지리학을 형이상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머물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 지리학 방법론에 내재하는 전제들 가운데에서도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가정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논의는 유기체론에 근거하여 지역을 복합적 존재로서 인식하고, 생명체와의 비유를 통해 지역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단위 지역이라는 전체의 한계와 더불어 단순히 요소들을 열거하는 데에 머물렀으며, 지역의 복잡성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생활양식이라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 데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주요어 : 지역지리학, 유기체론, 기계론, 요소 복합

1. 서론

그 동안 지역지리학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은 지역의 성격(지역성)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모두 다 망라하여 나열한다고 해도, 이는 전체로서의 지역의 성격(지역성), 즉 지역의 종합적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지역성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본질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 차로 인해 첨예한 대립이 야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지역성의 존재 양식과 그 본질에 대한 전제들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전제로부터 인식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전제들의 대립축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역 지리학 방법론에 내재하는 전제들 가운데에서도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가정, 즉 전체란 부분의 합이라는 견해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두 가지 가정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설정하였다. 즉 전자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누적되면 전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기계론으로부터의 함의)이며, 후자는 전체에 대한 인식은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체를 인식하게 되면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지만, 부분들에 대한 인식으로는 전체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유기체론으로부터의 함의)이다. 이 전제들로부터 다시 지역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여 지역 인식의 논리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을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누적되면, 곧 지역이라는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입장부터 검토해 보자. 이 견해에 따르면 전체로서의 지역의 성격(지역성)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인식의 누적성이라는 의미는 달리 해석하면 복잡한 것을 이해하려면 단순한 것으로 분해시킨 다음, 이 단순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차례 차례 누적시켜 나가면 최종적으로는 복잡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복잡함을 이해하려면 먼저 단순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 과정이 구체적 현실의 지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임강사(kwondaam@hanmail.net)

역 현상을 단순화시켜 (연역적으로) 추상적인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란 공간 질서들의 중첩이라고 간주한다. 즉 이를 전제하면 지역을 단순한 공간 질서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부가되어 현실의 지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 전체로서의 지역에 대한 이해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과는 별도로 존재하며, 따라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누적되는 것으로는 전체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입장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커크(Kirk, 1963)는 화가 로트렉(Lautrec)의 그림을 사례로 들면서 그림을 볼 때 '드러나는 패턴은 분명히 미술가가 그린 물리적 선들의 단순한 합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역시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인정한다면 지역이란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근본 단위를 형성하는 유기적 복합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즉 지역은 그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합체이지만, 이를 분리시켜 부분들로 인식하고자 시도하면 전체로서의 지역의 속성은 사라져 버리게 되므로, 전체로서의 지역이란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속성을 지닌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지역을 이해할 수 없다. 동일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소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속성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 요소가 변한다고 해도 전체로서의 지역의 성격은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로서의 지역은 구성 요소들이라는 부분의 합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분들로 분해되면 더 이상 전체로서의 지역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근대 지리학 방법론에서는 전체로서의 지역성은 구체적 현상으로서 표출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지역성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연구자가 선택한 일정한 이념 하에 부분 즉,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념을 명심하고 있으면, 부분의 인식이 진행되면서 누적되어 질적인 도약이 전개된다고 보았다. 가장 널리 수용된 이념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것이었다. 즉

지역 인식이란 걸로 보기에 다양한 현상들이 한 지역에서 통일된 양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지역의 특성이며, 따라서 지역을 일종의 유기체로서 간주하여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오랜 동안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한편에서는 조화라는 개념은 음악적 비유에 불과하고 학문적인 탐구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지역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들이 중첩, 결합되어 복합을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명확히 분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지만²⁾, 다소 소박한 낭만주의적 성향의 이념인 조화와 이 보다 객관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복합이라는 견해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조화(Ensembles / Harmony)와 유기체 유추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 고전 지리학의 거장들이었던 훔볼트와 리터는 바로 자연 현상들 간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환경 간에 존재하는 조화야말로 지역의 영역성을 이루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근대적 의미에서 지지를 주창한 리터는 다음처럼 제시하였다.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들과 나라 (자연) 간의 이러한 조화이다... 지구 상의 모든 산물의 분배를 어디서나 증진시키는 활동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나라들 모두 똑같이 다양성은 오직 조화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Ritter, 1861, 64, 306-307)

리터는 바로 이 조화야말로 신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목적론을 제시하여 후에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근대 지리학에 걸쳐 저변에 내려오는 강력한 견해였다.

그 후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그 영향으로 인간도

유기체로서 환경에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인간과 환경을 중심으로 그 상호 작용을 고찰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자연 환경이 능동적으로 작용하고 인간은 단지 여기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하는 환경 결정론과 인간이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한다고 보는 환경가능론 간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이 모두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역사적 전개과정은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켜 왔다고 주장한 견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들도 결국은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목시적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리적 사고가 전개되면서 지역을 유기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 유기체 유추 접근방법이 출현하였다. 즉 사회 집단이 일정한 공간적 범위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방식을 마치 유기체의 생태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기체로부터 유추를 통해서 접근방법을 도입한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진화론 등장 이전에 이미 리터는 유기체 통일체로서 지구를 파악하는 견해를 명확히 제시한 선구적 인물이었다. 그가 보기에는 '단일한 유기체로서의 지구란 개념이 지리 과학의 진정한 토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Ritter, 1861, 290) 없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란 하나로서, 모든 부분들이 서로 끊임없이 작용 - 반작용의 과정 속에 존재하며, 따라서 그 자체 하나의 단위이며, 유기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구는 그 자체의 발전 법칙과 그 자체의 우주적 생명을 지니고 있어, 그 부분들을 분리하여 하나씩 연구할 수 없다'(Stoddart, 1966, 691-692)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근대 서구 특히 독일에서 순수 지리학 운동의 정신적 이념이었던 자연 지역의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적 스케일에서 자연 지역 구분을 제시한 허버트슨(Herbertson)도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1905년에 지표의 물리적 요소와 유기적 요소들의 복합적 실체에 대해 거시적 유기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연 지역이란 '명

확한 구조와 기능을 지닌 비유기체와 유기체가 명확히 연합된 것으로, 동식물의 변화 만큼이나 규칙적이고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실체적인 형태를 지닌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동식물처럼 지역은 종·속·과·목 등으로 계층적으로 서열을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견해를 다음처럼 표현하였다.

토양은 그 자체 살이며, 식생은 동물체라는 기생 생물을 지닌 피부이며, 물은 엄청난 태양열에 의해 매일 그리고 계절적으로 자동적으로 순환하는 피이다. ... 만약 우리가 지구를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고, 지리적 지역, 구역, 소지구는 각각 기관, 조직, 세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의 유용한 비유에 가장 근접하게 될 것이다.(Stoddart, 1966, 691-692, 재인용)

이러한 사고 방식은 그 뿐만 아니라 당대의 지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견해였다. '유사한 사고 방식이 20세기 전반의 영국 지리 방법론을 지배하였다. 언스티드(Unstead)는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의 진화, 그리고 인간에게 해로운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지역의 병리학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역이란 유기체와는 달리 사멸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지역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생명체 역시 세대를 이어서 특성을 전한다는 점을 비교하였다.(Stoddart, 1966, 691-692)

이러한 입장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학자로서 비달 드 라블라쉬를 들 수 있다. '그는 유기체론적 접근을 통하여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유기체가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형되는지'(Archer, 1993, 511)를 연구하였다. 그는 유기체로서의 지역은 주민과 자연 환경 간의 조화를 통해 그 속성이 드러나며, 따라서 '지역은 특정시점에서 사람과 자연 사이의 균형상태를 반영하며, 이러한 균형 상태는 각 지역마다 고유한 것'(Hudson, 1990, 67)이라고 간주하였다. 여기서 균형이란 바로 앙상블(ensembles)로서, 그는 이 개념을 유기체로서의 지역인식과 결합시켰다. 그에

따르면

이질적 존재들을 공생 및 상호 호혜적 관계의 상태에 묶어 이를 양상물로 유지할 힘을 갖춘 복합적 환경의 개념이 바로 본질적인 지리적 사고이다. 이 개념은 살아 있는 존재들의 지리를 지배하는 법칙인 것처럼 보인다. 각 지역은 인위적으로 묶인 분리된 존재들이 거기서 공동 생활에 적응한 영역을 표현한다.(Vidal de la Blache, 1921, 7)

그는 이 조화 상태를 '인간과 자연은 달팽이와 그 껍데기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Wrigley, 1965, 9)고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변화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Hudson, 1990, 67)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에는 이러한 관계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따금씩 역사적 사건에 의해 교란되지만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비달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미풍으로 호수에 파도가 일면, 물속을 들여다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자고 호수가 잔잔해지면 밑바닥까지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Wrigley, 1965, 9)

그렇다면 지역의 내부적 속성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버티머(Buttimer, 1971, 41)는 비달학과 전통의 지역 인식 논리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 개념들을 환경(*milieu*), 생활양식(*genres de vie*), *civilization*³⁾, 교통(*circulation*)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비달은 지역마다 고유한 주민 생활을 중심으로 지역을 인식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생활양식의 개념이다. 생활양식은 지역마다의 고유한 산업 활동을 뜻하지만 단순한 경제적 의미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폐쇄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생계와 관련된 직업이 바로 경제 생활이며, 이로부터 고유한 음식 문화와 사회 조직의 성격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다른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처럼 생활양식 역시 성장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Buttimer, 1971, 54) 그러므로 비달에게 있어 환경이란 '이질적인 사회 요소들을

조화시키는 역할(*harmonizer*)을'(Buttimer, 1971, 45) 하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환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 생활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닌 사고방식에 따라 동일한 자연환경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civilization*이라는 개념은 '상이한 집단이 동일한 환경을 이용할 때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가를 설명'(Hoekveld, 1990, 15)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집단의 세계관과 습관, 가치, 태도, 심지어는 심리적 특성과 그 집단의 '심성'(mentality)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상이한 생활양식 간에는 상호 교류하게 되는 데, 이러한 교통과 연관된 활동이 바로 *circulation*이다.

이러한 프랑스 학파의 지역 연구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농민, 향촌사회, 장원제도와 함께 산업혁명의 희생물'이 되어, 2차 대전 이후 쇠퇴하게 되었다. 즉 비달 전통에 오류나 결함이 있어 그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이라는 서구 사회의 거대한 변화로 인해, 그 방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드러난 때문이다.(Wrigley, 1965)

한편 *civilization*으로부터 도출된 심성, 즉 지역 주민의 고유한 성격이야말로 지역성 내지 지역성의 주요한 형성 동인이라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특히 국가 단위의 지역 지리 연구의 경우 유기체론적 입장에서 본 지역의 총체적 성격이란 지역 주민 개개인의 성향을 합산해서는 포착될 수 없는 것이며, 개인들의 합 이상인 바로 그 무엇이 national character(국민성, 내지 민족성)이라고 생각하여 지역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총체적 성격을 파악해 내는 목표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1930~40년대까지만 해도 유행하였지만, 그 과학성을 비판받으면서 지금은 사라져버렸다.(Hoekveld, 19-20.)

3. 복합(Complex)으로서의 지역 인식

지역을 형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조화로서 파악하는 환경론이나 유기체 유추 접근방법은 근대 지리학의 성립과정에서 지역 인식의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낭만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비과학적 연구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전체로서의 지역이 지닌 속성은 다양한 요소들이 중첩되어 형성한 복합이라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훔볼트의 자연의 모습(Ansichten der Nature)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유래된다. 그는 식물을 개체로써가 아니라, 군집을 형성하고 식생으로서 고찰하여, 식생 지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그는 숲을 보면서 그 어우러진 모습, 즉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무를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그 후 지역에 존재하는 제반 현상들이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결합되어 시간적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인 경관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경관 개념은 식생을 중심으로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소인 기후, 그리고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의 식생을 전환시킨 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여기서 경관 개념의 기원을 고려한다면 식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이유는 자명해진다.

경관 개념은 구체적인 연구 대상을 제시하였지만, 그 process와 mechanism에 대한 탐구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경관이라는 외적 형태 대신에 그 내적 형성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등장하였으며, 바로 복합이라는 사고로 발전되었다. 사우어는 초기에 경관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복합체라는 관점에서 지역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곧 그 한계를 인식하고 대지와 인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복합으로서 지역을 인식하고자, culture history(歷史的 文化誌)를 추구하였다. 그의 관심은 역사적인 변천 속에서 물질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여기서 culture history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사가 아니라, 물질적 문화(衣食住)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고고학적, 인류학적 자료를 통해서 추적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지리적 호기심의 한 형식이란 대지와 생명(토지와 생활)의 측면에서 지구상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고찰하는 예술”이다. 즉 ‘지구상의 특정한 한 부분에 적용할 때, 개성(지역성)이란 대지와 생명의

총체적인 역동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Sauer, 1941, 104)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문 지리학은 심리학이나 역사학과는 달리 개인들과는 무관하며 오직 제도들 혹은 문화들과 관련된 학문으로서, 생활양식의 국지화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며, 첫째는 ‘문화 복합을 영역으로서 결정짓는 것’이며, 둘째는 ‘문화 경관에 표출되는 물질적 문화 복합에 국한시키는 것’이다.(Sauer, 1941, 358)

즉, 지역을 복합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문화복합이 지닌 영역성으로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우어가 문화인류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문화복합이라는 개념이 문화인류학의 용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제자로서 Louisiana 대학교에서 지리학을 이끌어 왔던 니펜(Kniffen, 1951, 241)은 ‘지리적 복합이란 두 가지 일련의 요인들, 즉 자연적인 요인과 인문적인 요인의 산물’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그가 제시한 요소-복합의 개념은 하트슨의 논리 전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Hartshorne, 1939, 295)

지역을 복합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지리학자인 하트슨은 지역의 본질이란 개별적인 요소들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 즉 요소-복합(element-complex)들의 중첩이 地域的 差別化(areal differentiation)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였다.⁴⁾ 그는 지역적 차별화란 지역에 따른 개별적 현상(혹은 事象)들의 차이가 아니라, 지표 상에 있는 지역들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즉 지리학자들의 궁극적 관심사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각종 현상이 구조적으로 상호 통합되어 형성해 놓은 지역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의 의미를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차이를 밝혀’(Hartshorne, 1959, 18)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야기되었으므로, 후에는 이 용어 대신에 ‘변이(variations)’를 사용하도록 권고’(Hartshorne, 1959, 17)하였다.

그는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인식이 누적되어서는 지역에 대한 인식으로 진전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하였던 그(Hart-

shorne, 1939, 438)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제시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였다.

$$w = F(u_1, u_2, \dots, u_n, z_1', z_2', \dots, z_n')$$

w : 지역성, u : 반독립적인 요소복합체, z' : 부가적인 요소

지역이란 반독립적인 요소 복합체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기타 요소들이 추가되어 형성된다고 생각하였다. 농업 지역의 경우 작물 분포만을 지표로 파악할 경우 한 농가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현실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농가의 영농 방식을 지표로 설정해야 농업 지역을 현실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의 영농 방식이 바로 요소 복합이라고 제시하였다.(Hartshorne, 1939, 339) 따라서 계통 학문으로부터 요소에 대한 지식을 도입하여 단순히 이를 병렬적으로 열거해서는 지역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런데 요소 복합은 지역에 따라 그 결합 방식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요소 복합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인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통 학문의 요소별 지식은 지역적 관점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Hartshorne, 1939, 388)는 비유를 들어 '지리학자에게 있어 고래는 선원들에게 있어서처럼 물고 기일 뿐이다. 즉, 육지 동물이라기 보다는 해양동물이라는 유형 개념 하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에 따른다면 지리학자에게 있어 고래는 포유류 동물이 아니라, 매우 큰 어류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부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리학자들의 관점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입지 문제 연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리학보다는 경제학의 훈련이 더 필요하며, 문제의 귀결보다는 문제 그 자체에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므로, 지리학자들은 입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Hartshorne, 1939, 259-260)는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외과 의사가 무척추동물(불가사리)에 척추를 집어넣을 수 있듯이, 외국 자본가들과 공학기술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원시 자급 경제 지역에라도 공장을 세울 수' 있지만, 이는 지리적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문제 자

체에 관심 갖지만, 지리학자는 그 귀결에 관심 가져야'(Hartshorne, 1939, 419)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귀결이란 무엇인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견해에 따르면 지리학의 관점에서는 입지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경제적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지 후에 전개되는 지역 변화의 총체적 양상이 더욱 중요하며, 바로 이것이 지리적 '귀결'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변화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하트손은 '전체로서의 지역이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라, 상이한 지역적 구성요소들이 변화하면서 이들 구성요소들의 복합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따라서 문화 경관의 발달이란 다른 아닌 그 문화적 구성요소들의 복합의 발달일 뿐이다.'(Hartshorne, 1939, 259-260) 하트손은 지역마다 복합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동일하지 않고 따라서 일반화가 불가능하기에 과학적인 접근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반박하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지구 상의 어떤 지역에서든지 발견되는 요인들 -특정한 기후, 지형, 토양, 인구, 작물, 농장, 도시 등 등의 조건들- 의 결합이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지리학은 세계 어지거나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총체적 복합체가 산출하는, 이들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결정하는 문제로 축소(환원)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설사 지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존립 가능하다고 할 지라도 거의 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이다.(Hartshorne, 1969, 15)

그런데 실제 지역 연구에서는 경계 설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대개는 점이 지대가 너무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하트손은 바로 이러한 난점을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요소 복합들을 중심으로 지역을 파악하면, 지역마다 복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다수의 복합이 결합되어 존재하는 경우와 소수의 복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점이 지대란 바로 인접한 지역의 복합들이 다수 중복

되어 존재하면서도 실제로 그 요소들 간의 결합 관계는 극히 미약한 경우이다. 즉, 지도로 분포를 표현하였을 때, 지표들 간에 큰 편차가 나타나 일치하는 경계선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경계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현상 자체가 지역 인식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성격이란 그림 맞추기 놀이에 서처럼 경계가 뚜렷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잉크를 물에 풀었을 때 멀리 퍼져 나가면서 색이 점차 옅어지듯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표는 모자이크와는 정 반대이며, 아마도 보다 현실에 근접한 것이 헌팅턴이 지상의 화폭이라고 표현한 비유'(Hartshorne, 1939, 252)라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지역적 차별화(areal differentiation)이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이 전통적인 지역 연구와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기로 한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지역의 凝集力을 이해하는 것이 지역 이해의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만일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케이크에서 한 조각 잘라낸 것처럼 전부 똑같다면 전체는 바로 부분의 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분들을 결집시키는 메카니즘이 존재하기에 이들 전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파악할 수 있다. 응집력이란 바로 이질적인 부분 공간들과 이질적 형상들을 묶어 주는 힘이다. 따라서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응집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뚜렷한 응집력을 지닌 지역은 바로 국가라는 정치 단위로서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리학에서는 국가는 인위적 단위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이를 지리적으로 설명할 이론도 결여되어 있었다. 하트손(Hartshorne, 1954, 190)은 이에 대하여 '정치 지역에 있어 등질성의 요소는 응집력'이라고 제시하면서, 구심력과 원심력, 국가 이념(state-idea)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연구는 지리학이 아닌 제반 사회과학과 유사하게 된다는 한계를 의식하게 되었다.

또한 응집력이라는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난점

이 내재해 있다. 만일 어떤 지역이 강한 응집력을 지녔다면 그 지역은 상위 지역으로 통합시키거나 하위 지역으로 구분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지역지리학이란 하위 지역이 묶여져 상위 지역으로 연결되는 방식, 이 더 큰 지역들이 더 큰 scale의 지역들과 관련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침내 궁극적인 단위, 유일한 실제의 단위 지역인 세계에 이를 때까지 그 방식을 연구(Hartshorne, 1939, 442)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지역이 지닌 응집력은 다양한 스케일과 다양한 유형에 걸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를 요소-복합의 결합 정도로 대체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는 모자이크라는 개념은 개별 단위 지역의 응집력을 강조하므로, 지역 개념이 지닌 유연성과 융통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대신에 '독자적으로 일하는 몇 명의 건축가들이 건설하는 건물이라는 헤트너의 비유와 지상의 화폭(canvas)이라는 헌팅턴의 비유'를 받아들였다. 즉, '지표란 다소 독자적으로 작업하는 예술가들이 - 이들은 작업해 나가면서 각자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는데 - 저마다 선정한 상이한 색상 디자인의 상호관련된 결합에 따라 산출되어'(Hartshorne, 1939, 441)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4. 지역 연구 방법과 그 한계

이처럼 다양한 방법론적 견해가 전개되었지만, 실제 지역 연구에서는 우리가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공간 단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찾아 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물리학이 분자나 원자 나아가 소립자 등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에 대한 연구의 발달사이듯이, 생물학 역시 생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세포를 발견하면서부터 박물학에서 벗어나 과학으로 정립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자극받았다. 지리학 역시 최소 단위의 지역이 존재하며 이를 찾아내어야 과학적인 연구가 출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근대 지리학사에서 순수 지리학 운동에 주창하였던 학자들로부터 자연 지역이라는 개념이 도출되며 이

부분과 전체 : 근대 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는 허버트슨의 자연지역 구분이라는 사고로까지 전개되어 나간다.

최소의 단위 지역에 대한 믿음은 지역 구분에 대한 논리를 발달시키게 되었다.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개체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역이란 지표 공간의 한 조각이므로 공간 상에서 지역의 범위 내지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지역 구분의 의의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개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체들이 일단 파악되면 상위 수준의 지역이란 이 단위 개체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단위성이 잘 드러나는 수준에서 지역을 구분한 다음, 이를 다시 지역별로 설명하여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전체로서의 지구가 지닌 통일성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상위 지역을 일단 전체를 하고서 하향적으로 구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역을 하향적으로 구분하다 보면 거의 무한히 세분하게 되므로, 지역들의 단위성이 잘 드러나는 수준에서 멈추어야 한다. 마치 피사체가 가장 뚜렷히 보이도록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일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결합시켜 지역들의 단위성이 잘 드러나도록 해상도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지역 구분의 논리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지표 설정에 따라 지역 구분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난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모든 지표를 전부 지역 구분에 적용할 수는 없고 무엇을 지표로 적용할 지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지표들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었다. 즉,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과제였지만, 이러한 종합적 지표를 현실적으로 제시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난점 때문에 주로 지형적 조건에 따라 인접 지역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지역, 즉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우텐자흐가 한국을 16개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충청-전라 지역과 울릉도가 동일한 수준의 지역으로 파악하였듯이, 지형적 고립성과 단절성을 기준으로 하면 도서 지역과 반도 지역 등이 지나치게 부각된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지역 구분에서 울릉

도는 지역 경계도 명확하고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도 독특하며, 겨울 강설에 대비한 우대기 등 가옥 양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제 요소들이 독특하면서 그들 간에 긴밀한 결합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부 지방 등 내륙의 경우에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요소들 간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쉽게 포착되지 않아 지역의 경계 설정이 곤란해진다. 고전 지역지리 연구들이 이탈리아나 이베리아처럼 반도를 주로 다루면서도 중국이나 유럽 내륙 등은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도 이러한 난점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단위 지역의 개념을 내륙에 적용하면, 우리 국토와 같이 산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주로 지형 조건과 관련되어 자연적인 지표 공간 단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와 일터는 대체로 분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지와 일터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항상 보고 접하는 지표 공간의 범위는 분지의 외곽에 비교적 높은 산지로 둘러 싸여 있는 범위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 비교적 높은 산지로 둘러 싸인 지표 공간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단위 생활 지역을 이룬다. 이와 같이 자연적인 단위 지역은 사회·경제적인 단위 지역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규제된 단위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단위 생활 지역으로 계속되어 오면서 문화·역사적인 단위 지역의 성격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있어 생활 지역은 자연적인 단위 지역, 사회·경제적인 단위 지역, 문화·역사적인 단위 지역 등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다. (유홍식, 1995, 125-126)

이러한 단위 지역이 모여 더 큰 지역을 이루게 될 때 이를 가리켜 모자이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근대 이래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아직도 이에 대한 집착이 팽배하다. 그러나 다소 동질적인 지표 공간의 한 조각 중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더 작은 지역으로 분할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질적인 성격을 지닌 분리불가능한 지역같은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근거에서 근대 지리학이 발전

되어 오면서 “단위 지역”의 개념은 부정되었다. (James, 1954, 8)

그 대안으로 지배적인 경관을 이해하고자 시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근본 사고는 지질(구조), 기후, 토양, 식생, 취락, 광물 및 공업 자원, (교통) 통신, 취락, 인구 분포 등 그 모든 지리적 사상의 연구를 통해 작은 지역은 어떤 독특한 개별성 - 전반적으로 등질성을 보여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하더라도 -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가시적 경관에 통합되어, 상호 의존적으로 하나의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흔히들 말하여 왔다. 게다가 모든 지역은 인간에 의해 전혀 점유당한 적이 없는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간 활동에 의해 영향받아 왔고, 발전되어 왔으며, 변형되어 왔다. 따라서 경관은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 오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구조하여 온 최종 산물이다. 따라서 연구는 진화적 견해를 취해 왔으며, (일부 사람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지리학 연구 가운데 하나는 수 백년 혹은 수 천년 전의 경관을 복원하고자 시도하는 것이었다.(Freeman, 1961, 85)

이미 앞에서 인용한 분지 지역의 사례는 이러한 사고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다.

분지의 자연 경관 상에는 인간에 의한 문화 경관이 중첩되어 있다. 인간은 토지를 점유하여 이용하는 가운데 자연 경관 상에 도시, 농경지 등 문화 경관을 형성하였다. 분지와 문화 경관의 관계는 분지에 발달되어 있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지에 지방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지 내에 도시와 주변 농촌이 함께 나타난다. 이에 비해 분지에 거대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지 전체가 도시화 되어 있다.(유홍식, 1995, 125-126)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지역들의 가시적 경관이 획일화되어 가면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관 개념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어 기각하게 된다면 다음에서는 지역론의 패러다임을 정립한 하트슨의 견

해와 연구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앞에서 거론한 단위 지역 개념의 한계는 특히 해상도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단위 지역이 결합되어 형성된 상위 지역은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희미하게 된다는 데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하트슨은 바로 지역적 차별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히려 이러한 성격 자체를 해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제 그의 견해에 따라 요소-복합에 의거하여 지역을 인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자.

먼저 지도화 작업을 통하여 여러 현상들의 분포를 파악한다. 다음에는 이 분포도를 중첩시켜서 중복되는 현상들이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들로 공간 단위(지역)를 구분한다. 다음에는 지역별로 중복되는 현상을 파악하여 요소-복합을 설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 요소-복합 형성하는 관련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 요소-복합에 의거해 중심과 주변, 혹은 점이 지대를 인식하여 간다. 여기서 이러한 인식방법의 한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건축물이나 화폭의 비유를 좀더 고찰하여 보자. 건물이나 화폭을 여러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짓거나 그려 나간다면, 부분들 간에 관련성이 무시되고 전체적인 조화도 결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제대로 유지된다면 그 구조는 극히 단순하거나 영성한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하트슨에 따르면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복합들 간에 상관 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이들을 함께 고찰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지역은 극단적인 경우 아예 구조가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극히 단순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논리적 결합 때문에 ‘형이상학자들은 영감에 차서 유기체적 통일성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그들의 방법론적 연설에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프랑크 학파 지역 지리학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지리 연구는 지역 데이터 범주들의 고정관념화된 카탈로그가 되어버렸다.’(Stoddart, 1986, 243) 지역의 응집력을 파악한다고 시도하는 연구들도 실제로는 다른 지역과의 대비(regional contrast)를 통해 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친 것이다. 예컨대 산지와 평지, 육지와 도서 등의 지형의 대조, 강수량 등 기후의 지역적 대조 등이

나 인구 조밀지역과 인구 희박지역 등 인구 분포의 지역적 대조, 더 나아가서 농업 방식, 민가 유형, 촌락 형태 등의 생활 양식상 대조를 고찰하는데 머물렀다. 또는 전체 지역을 구성하는 여러 지역을 나열하면서 예외적인 현상에 주목해서 이를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제시하였던 것이다.

5. 결론

근대 지리학은 지역 간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속성이란 여러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역을 유기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논리는 전체로서의 지역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유기체와의 비유를 통해 지역의 움직임이라는 사고를 발전시켰으며, 지역의 속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기의 지역 개념은 등질 지역만을 가정하였으며, 그 후 이질적 현상만 아니라 이질적인 지역들 간의 결합에 주목하여 기능 지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즉 전통적인 등질 지역의 관점에서는 지역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제로는 하나의 공간 단위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역이라고 규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즉, 등질성을 지니든지, 기능적 결합 관계가 존재하든지 모두 지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학 철학과 방법론에서 설명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지 못하여 기술만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화라는 사고가 결여되어 있었고, 지역 개념은 추상화의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논리에서 지역적 종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현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역적 차별화라는 개념을 통하여 동일한 구분의 수준에서의 점이 지대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하위 지역이 상위 지역으로 결합되는 방식에 내포된 가변성과 역동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단위 지역이라는 전체 개념의 한계와 더불어 정태적으로 등질 지역과 기능 지역 등 지역 개념⁵⁾을 유형 분류하는데 그치고 지역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전산업 시대의 지역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에 의거하여 산업화된 지역 현상을 탐구하고자 시도한 데에서 기인된 것이다. 경제 논리가 아닌 문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생활양식론과 유기적 복합의 개념은 도시화 시대의 공간 질서를 보여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도시화와 공업화 시대의 지역지리는 결국 공간 질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註

- 1) 地域性에 해당되는 어휘는 서구어에서는 좀체 찾기 힘들다. 이는 character of a area,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등으로 간혹 사용되며 학문적으로 공인된 개념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사회의 공간성이라고 할 때에는 사회가 공간으로서의 屬性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역성이라고 하면 지역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는 의미, 즉 regionality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저마다 고유한 성격을 지녔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적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1930년을 전후하여 日本 지리학자 田中啓爾가 독일의 지리학 방법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地域性의 究明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야기되었다. (田村百代, 1984, 41)
- 2) 예를 들어 조화라는 이념을 강조했던 Vida de la Balche는 지역의 성격을 의인화시켜 personality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지역을 복합이라고 간주하였던 Sauer도 지역의 해부(areal anatomy)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특히 초기의 “Sauer”가 지역을 생물체로 비견하였음이 지역의 특색을 개성(personality)이라는 용어로 대치한 그의 한참 뒤의 논문인 ‘Personality of Mexico(1941)’에서 명백히 입증된다.”(유제현, 1987, 347)
- 3) 이 프랑스 어휘는 통상적인 의미와 상당히 다르므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4) 원래 지역적 차별화란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Sauer였지만, 하트슨이 지리학의 핵심 주제로 제시하면서 그의 지역 인식 논리를 특징짓는 주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 5) 결절 지역과 등질 지역이라는 용어는 1954년 Whittlesey가 처음 고안해 낸 용어이며, 형식 지역과 기능 지역이라는 용어는 Carol이 1946년 고안해 낸 용어이다. 하트슨은 후자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영어권에 널리 보급되었다.(Hartshome, 1959, 134, 136.)

文獻

- 유제현, 1987, 미국 지리학에 있어서 지역 개념의 발달, 지리학논총, 제 14호, 345-318.
- 유홍식, 1995, 지리과의 환경교육 목표와 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박사학위 논문.
- 田村百代, 1984, 田中啓爾と日本近代地誌學, 古今書院, 東京.
- Archer, K., 1993, Regions as Social Organisms: The Lamarckian Characteristics of Vidal de la Blache's Region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3), 498~514.
- Buttimer, A., 1971, *Society and Milieu in the French Geographical Tradition*, Rand McNally, Chicago.
- Freeman, T.W., 1961, *A Hundred Years of Geography*, Aldine Publishing Company, Chicago.
-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Hartshorne, R., 1954, Political Geography, in James, P.E. and Jones, C.F., (eds.),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University Press, Syracuse, 169-225.
- Hartshorne, R., 1959,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eography*,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Hoekveld, G.A., 1990, Regional Geography must Adjust to New Realities, in Johnston, R.J., Hauer, J. and Hoekveld, G.A.,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tledge, London, 11-31.
- Hudson, R., 1990, Re-thinking Regions: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on Regions and Social Change, in Johnston, R.J., Hauer, J. and Hoekveld, G.A.,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tledge, London, 67-84.
- James, P.E., 1954, Introduction: the Field of Geography, in James, P.E. and Jones, C.F., (eds.),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University Press, Syracuse, 3-18.
- Kirk, W., 1963, Problems of Geography, Geography, Vol. 48, reprinted in Jones, E., (ed.), 1975. *Readings in Social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91-103.
- Kniffen, F.B., 1951, Geography and the Past, *The Journal of Geography*, vol.50: 3, reprinted in *Environment and Culture*, Louisiana State University, Baton Rouge, 241-242.
- Ritter, C., 1861, *Geographical Studies*, Van Antwerp, Bragg & Co., New York.
- Sauer, C.O., 1941a, Forward to Historical Geography, reprinted in *Land and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uer, C.O., 1941b, Personality of Mexico, reprinted in *Land and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Stoddart, D.R., 1966, Darwin's Impact o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5(4), 683-698.
- Stoddart, D.R., 1986, *On Geography*, Basil Blackwell, Oxford.
- Vidal de la Blache, P., 1921, *Principes de Geographie Humaine*, Librairie Armand Colin, Paris.
- Wrigley, E.A., 1965, Changes in the Philosophy of Geography, in Chorley, R.J. and Haggett, P., (eds.), *Frontiers in Geographical Teaching*, Methuen, London, 3-20.

The Part and the Whole : The Ontological Assumptions of Modern Geographical Thought about the Regional Geography

Jung-Hwa Kwon*

Abstract

Main debates in the modern geographical thoughts had been developed around the regional geography. Because regional geography had been regarded as a *raison d'être* of geography, it remains solid status in geography curriculum. But unscientific nature of regional geography was the main problem of modern geography. Modern geography has developed the logical legitimation of regional geography, instead of research procedures.

We examine the logic of modern geographical thoughts from 3 worldview. Here we represented the part - the whole relationship as the primary category, and classify these into three type according to the implicit proposition about the relationship.

One is the organic view, which assume that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the parts. this view was the primary proposition held by the modern geographers. This view regarded the region as organic complex, and presume the unit region which is irreducible to the elements. The

other is mechanic view, which presuppose that the whole is the sum of the parts. This view comprehend region by means of spatial order, in order to simplify the complex reality. Then we compare real condition with assumption. These two view held static assumption. Now, the third view regarded the part- the whole relationship as being dynamic.

Most geographers held the organic view, although someone suggests the idea of harmony, the others suggests the idea of complex. But these view presumes the pre-industrial society in which the *genre de vie* was main principle of social order. Therefore It could not comprehend the regional concept in the context of the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Key Word : regional geography, organic view, mechanic view, element-complex

(2001년 10월 20일 접수)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kwondaam@han-mail.net)